

국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곡물 내셔널리즘 동향*

- 수출규제, 자국 생산의 안정화, 수입규제 완화 -

허 덕

곡물 생산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밀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곡물 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원유(原油) 가격은 배럴 당 60달러대에서 현재는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곡물 수요 증가를 전망한 투자 자금이 곡물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해상 운임도 원유가격 상승 영향으로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곡물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가격의 인상은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 곡물의 주요 생산·수출국에서는 자국의 곡물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규제, 자국의 생산 안정화, 수입규제 완화 등의 조치(소위 곡물 내셔널리즘 내지 곡물 민족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료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곡물 내셔널리즘」의 움직임을 정리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 본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연구위원이 ‘일본농축산진흥기구 축산정보(해외편)’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곡물 수급상황을 검토하고, 곡물 내셔널리즘의 움직임과 곡물 가격상승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표 1 세계 전체의 곡물(조곡+밀) 수요의 동향, 2004-08

단위: 백만톤, %

구분	2004/05(A)	2005/06	2006/07	2007/08(B)	(B)/(A)
(1) 생산	1,643	1,599	1,574	1,657	100.9%
(2) 수요	1,587	1,616	1,627	1,673	105.4%
BRICs 수요	468	471	480	491	105.1%
당년도 과부족(1)-(2)	56	▲ 17	▲ 52	▲ 16	-
(3) 재고	328	312	259	243	74.1%
재고율(3)/(2)*	20.7%	19.3%	15.9%	14.5%	-

주: FAO의 적정 재고 수준은 17-18%
 자료: USDA(FAS), 2007.12

1. 최근의 곡물 수급 전망

미국, 대풍작에도 불구하고 가격 높게 유지-농가소득 증가로 정부 보조금은 감소

중동산 석유 의존도 경감 및 자연환경 보호, 농가소득 향상, 고용창출 등을 위해 미국은 2005년 8월 미국 에너지 정책법, 2007년 1월 일반교서 등을 통해 재생가능 연료의 사용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은 여전히 「골드 러쉬(gold rush)」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붐은 에탄올 플랜트의 이익률 저하로 한때 기세가 다소 누그러들기는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농가는 곡물을 수출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적게 받는 에탄올 생산용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주요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가격은 (1) 원유가격 동향, (2) 미국의 에탄올 조세 감면조치(2010년까지 51센트/갤런)와 수입관세(2008년까지 54센트/갤런) 등의 에너지 정책, (3) 비식품을 이용한 경제적인 에탄올 생산기술개발 등의 요인이 서로 얽혀있어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표한 OECD-FAO 농업관측(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년 7월)이나 미국 농무성(USDA)의 장기 전망(USDA Agricultural Projection to 2016, 2007년 2월)에 의하면, 향후 옥수수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에 머물러, 대폭적인 가격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미국에서 사료 전용으로 옥수수를 수입하던 나라들은 앞으로 자의든 타의든 식용이나 비육용이나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표 2 세계의 조곡 수급

단위: 백만톤, 달러/부셸, %

구 분	생산량	무역량	소비량	기말재고	국제가격
01/02-05/06 평균	950	105	949	242	2.63
06/07 (1)	981	107	1,016	204	3.57
07/08	1,046	102	1,049	195	4.04
08/09	1,082	107	1,071	200	4.00
09/10	1,104	109	1,091	207	3.74
10/11	1,112	109	1,105	209	3.64
11/12	1,126	110	1,119	211	3.66
12/13	1,141	112	1,132	214	3.58
13/14	1,152	113	1,143	217	3.52
14/15	1,160	115	1,152	219	3.52
15/16	1,173	116	1,164	222	3.54
16/17 (2)	1,184	118	1,175	226	3.51
(2)/(1)	120.80%	111.00%	115.70%	110.60%	98.40%

주: 1) 06/07은 잠정, 이후는 전망 2) 무역량은 연차베이스(01-05 평균, 06-16까지) 3) 생산량부터 기말재고까지는 보리, 옥수수, 연맥, 수수 및 기타 조곡 합계, 호주 라이소맥, EU 라이맥은 잡곡 포함. 4) 국제가격은 미국 캘리포니아항 선적 No. 2 yellow corn, OECD, FAO 공표 데이터(달러/톤 단위)를 미국 달러/부셸로 환산 자료: OECD, 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미국농무성 경제조사국(USDA/ERS)이 2007년 11월에 공표한 「미국 농가의 수지 보고서」(Farm Income and Costs)에 의하면,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2007년 미국의 작물수입은 전년보다 18.8% 높은 1,426억 달러, 전미 농가 소득은 지금까지 최고인 2004년의 기록보다 16억 달러 정도 높은 875억 달러로 보고 있다. 한편, 가격하락을 보전하는 정부의 직접지불은 전년보다 23.4% 낮은 121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물가격의 상승은 미국 농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혜택을 가져오게 되지만, 곡물을 매입하는 측에는 그만큼의 부담을 강요당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미국의 농가 소득 향상과 정부의 직접 지불 감소

단위: 억달러,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잠정)	전년대비(%)
현금수입	2,156	2,373	2,407	2,393	2,822	117.9%
작물 수입	1,099	1,137	1,159	1,200	1,426	118.8%
정부의 직접지불	165	130	244	158	121	76.6%
순손익	597	859	771	590	875	148.3%

자료: USDA(ERS) 2007년 11월

2007년 10월 OECD가 공표한 「OECD 국가의 농업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Evaluation)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의 정부가 농가에게 지불한 보조금액수의 비율은 2005년에는 농가 총소득액의 29%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2% 감소한 27%였다. 또한, 국내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농가에게 지불한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인은 농업정책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세계 전체 식량가격 상승 때문이다. 즉, 곡물 가격상승은 곡물 생산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표 4 밀의 생산량, 수출량 및 기말 재고 동향

단위: 만톤, %

구 분	2005/06	2006/07(잠정)	2007/08(예측)	전년대비증감비율	
생 산 량	EU-27	13,236	12,481	12,050	▲ 3.5%
	러시아	4,770	4,490	4,800	6.9%
	호주	2,537	990	1,270	22.2%
	캐나다	2,575	2,527	2,005	▲ 20.6%
	우크라이나	1,870	1,400	1,380	▲ 1.4%
	아르헨티나	1,450	1,520	1,500	▲ 1.3%
	세계 계	62,166	59,366	60,231	1.5%
수 출 량	EU-27	1,569	1,387	900	▲ 35.1%
	러시아	1,066	1,079	1,200	11.2%
	호주	1,521	1,124	800	▲ 28.8%
	캐나다	1,562	1,948	1,450	▲ 25.6%
	우크라이나	646	337	150	▲ 55.4%
	아르헨티나	830	1,221	1,100	▲ 9.9%
	세계 계	11,331	11,503	10,681	▲ 7.2%
세계의 재고 수준	14,784	12,430	11,006	▲ 11.5%	

자료: USDA(FAS) 2007년 12월, 단, 2007/08년도의 호주 생산량은 ABARE(2007년 12월)

기후 변동 : 한발과 호우가 유럽, 호주, 캐나다를 강타

2007년 9월 USDA가 공표한 세계 곡물시장과 무역(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에서는 밀 가격 급등의 주요인으로 주요 밀 생산국의 한발과 호우 등 기후변화에 의한 생산량 감소라고 지적하였다.

유럽은 2007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열파로 인한 한발을 겪었던 반면, 북부지역에서는 호우로 국지적인 홍수에 휩쓸려 2007/08년도 EU-27개국의 밀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3.5% 낮은, 한발에 습격당한 4년 전의 감산에 버금가는 낮은 수준의 생산량이 전망되고 있다. 밀 생산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주로 남미에서 옥수수가 수입되고 있으며, 2007/08년도의 옥수수 수입량은 과거 최대이던 950만톤(전년 대비 33.8% 증가)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한발을 겪은 호주의 2007/08년도 밀생산량은 2007년 8월과 9월의 강수량이 부족하여, 2006/07년도처럼 백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대규모 한발은 아니지만 2002/03년도 한발 때에 버금가는 낮은 수준이 전망되고 있다. 2007년 12월 4일 호주농업자원경제국(ABARE)이 공표한 2007/08년도 밀 생산예측에 의하면, 전년도를 웃돌기는 하겠지만 과거 5개년(2001/02~2005/06년도) 평균인 2,157만 톤보다 41.1% 적은 1,27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도 광범위에 걸친 열파에 의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단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2007/08년도 밀생산량은 전년도보다 20.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2007/08년도 세계 전체 밀 기말재고는 전년도보다 11.5% 적은 1억 1,006만 톤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1977/78년도 이래 30년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곡물 내셔널리즘의 움직임

곡물 수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곡물의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 가격이 인상되어 국내 정세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자국의 곡물 공급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곡물 내셔널리즘)이 활발해지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선거대책과 같은 사정도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수출규제, 자국 생산 안정화, 수입규제 완화 등 「내향」 지향의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더욱 강해지는 추세이다.

표 5 각국에서의 수출규제 사례(2007년 12월 현재)

국가	종류	조치 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	07/11/12-08/4/3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수출세	08/1/1-12/31
	곡물, 제분	수출할당	08/1/1-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인도	밀, 밀제품	수출금지	07/2/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라이맥	수출할당	07/11/1-08/3/31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를 국내판매로	07/10월 상순-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8/4-08/3/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4-08/3/5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07/9월부터
EU	곡물(라이맥 등 제외)	관세 철폐	08/1/11-6/30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자료: 일본농축산수급안정기구, 「축산의 정보(해외편)」, 2008년 2월호

수출규제 등

1) 러시아: 밀, 보리에 수출세를 도입

2007년 6월 이후부터 상승한 러시아 밀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부터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식품가격도 2007년 8월 이후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관세 동맹국과의 정책 조정을 거쳐 2007년 11월 12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밀, 보리 2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한다고 공포(2007년 10월 10일자 결의 제 660호)하였다.

수출세는 밀 1톤당 22유로를 밑돌지 않는 10%의 증가세, 보리 1톤 당 70 유로를 밑돌지 않는 30%의 증가세를 부과한다. 한편, 러시아 내 곡물

수급이 한층 어려워지면, 밀의 수출 제한을 위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2007년 12월의 하원 선거, 2008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며, 러시아 정부로서는 식품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USDA에 의하면 위의 결의에 의한 영향에 대해 수송차량 부족 등에 의한 수송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보리 수출은 30%의 수출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결의 후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의 수출세가 부과된 밀의 수출은 이익은 감소하더라도 가격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이고, 2008년 1월에는 보리 수출세를 추가 인상하여 40%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 밀 수출은 결의 후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0월의 밀 수출량은 결의전 갑작스런 수요로 인해 월간으로서는 기록적인 280만 톤이었다.

수출업자에 의하면 현재의 계약이행에 노력하겠지만, 2008년 1월, 2월 인도분 신규 계약은 수출세 인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고 한다.

2) 우크라이나: 빵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확대

2007년 10월 2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7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밀, 보리, 옥수수, 호밀 4품목에 대해 수출할당을 적용하며, 그 수량은 120만 3천 톤으로 공포(2007년 9월 26일자 명령 제 1179호)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곡물시세 상승으로 우크라이나 국내의 빵류 등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정부의 곡물 재고 수준을 높이며, 한발에 의한 국내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007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위의 4개 품목에

대해 3천 톤씩 수출할당을 실시하고 있었다. 생산자들은 정부의 수출 할당이 해제될 때까지 또는 수출할당이 확대될 때까지 매석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할당은 수출을 제한하여 자국 곡물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지만, 우크라이나의 곡물가격은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전망하는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세르비아: 수출금지를 추가 연장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시장에 곡물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빵류, 식육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4일부터 3개월간, 밀,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4품목에 대해 수출금지를 하고 있었다. 이에 추가하여 2007년 10월 26일부로 밀과 옥수수 2품목에 대해 명령을 추가하여, 2008년 3월 5일까지 120일간에 걸쳐 수출금지기간을 추가연장하였다. 대두와 해바라기는 이미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명령에서는 밀과 옥수수 수출금지와 더불어 소맥분은 8만 톤, 분쇄 보리, 옥수수 등은 14만 3천 톤의 수출할당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당초 가격이 상승해 흉작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수출할당을 계획하였지만, 할당에 얽힌 부정부패를 피하기 위해 실제 실행하는 선택사항에서는 제외하고 있었다. 세르비아 정부에 의하면 2007년 6월, 7월과 동등한 페이스로 수출될 경우 자국 재고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었다고 한다.

세르비아 밀 가격은 2007년 7월에 겨우 1주 만에 30%의 상승을 나타냈고, 옥수수 가격은 7~8월에 걸쳐 2개월 전 수준을 50%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월부터 시작된 수출금지 이후 수 주 후에는 가격이 안정되

는 모습을 보였지만, 9월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분, 제빵업자는 수출금지조치를 환영하지만, 경제주의자들에게는 자유경제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으며, 즉시 철회 요구를 받고 있다. 수출업자에 의하면 수출금지를 예측하고 있었지만, 금지가 공포된 다음날부터 실시되므로 진행중인 계약을 재검토하는 시간마저 제공되지 않았으며, 수출금지가 길어지면 보관비용이 늘어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국제적인 신용을 실추하는 등 이번 조치에 의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금지는 무역 상대국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특히 EU에서는 통상의 상관행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행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 카자흐스탄: 밀 수출량의 20%를 국내 판매로 돌려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은 풍작으로 아직까지는 수출규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자국과 해외 밀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촉진되고 있어 자국의 밀 재고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10월 상순 밀 수출량의 20%를 자국용으로 판매하도록 수출업자에게 지시하였다.

5) 중국

가) 곡물 등의 수출세 환급을 취소

2007년 12월 17일 중국 정부는 「밀 등 미가공 곡물 및 제분의 수출세 환급 취소에 관한 통지」(2007년 12월 14일부 재세 [2007] 169호 재정부·국가 세무총국 통지)로, 밀과 벼, 쌀, 옥수수, 대두 등의 미가공 곡물 및 가공된 곡물(이하 「곡물 및 제분」) 84품목(관세 번호별)에 대해, 수출세 환급을 2007년 12월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재 정부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5~13%의 수출세 환급을 하고 있었다.

통지에 의하면 구체적인 집행일시는 세관이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수출세 환급 전용)」에 이 취지를 명기하여 수출기일에 맞추고자 한다. 또한,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수출 계약이며,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의 주관 세무기관에 12월 31일까지 계약서 원본 및 부분을 제시하여, 심사 후에 등록하면, 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수출되는 것에 한해 수출세를 환급해주는 경과조치가 취하여진다고 한다.

중국 재정부는 이 정책의 배경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국제 식량 가격의 영향을 받아 곡물 및 제분의 내외 가격차가 확대되고, 곡물 등의 수출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공급확보와 가격안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수출 가속에 의한 중국의 과대한 무역흑자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곡물 수출에 수출세, 수량 할당

2007년 12월 30일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의 인가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걸쳐 밀, 옥수수, 대두 등의 미가공 곡물 및 가공이 끝난 곡물분 57품목(관세 번호별)에 대해, 5%에서 25%의 잠정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맥류 및 그 분말의 잠정 관세율은 각각 20% 및 25%, 옥수수, 대두는 5%, 옥수수·대두의 분말은 10% 등이다.

또한 상무부는 2008년 1월 1일, 국내의 식량 가격 안정과 공급 확보를 위해 같은 날자부터 당분간 곡물 및 곡물분의 수출 할당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상무부에 의하면, 동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른 임시적인 것이며, 실시 기간은 중국 시장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결정한다고 한다.

6) 인도: 2007년 말까지였던 수출 금지 기한을 무기한으로 변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밀에 대해 국제 가격의 상승에 의한 가격에의 영향을 억제하고, 정부의 개입 재고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인도 정부는 밀과 밀제품에 대한 수출금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2007년 2월 9일자 상무성 고시 제 44호)로 기한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를 당분간 무기한으로 변경한다고 고시(2007년 10월 8일자 상무성 고시 제 33호)하였다. 그 배경에는 선거대책도 있는데, 인도 정부는 밀이나 쌀 등 기본이 되는 식품 가격 동향에 대해 특히 주시하고 있다.

7) 파키스탄: 밀과 소맥분에 35%의 수출세

밀과 소맥분이 부족함에 따라 식품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2007년 9월(라마단 : 단식월)들어 40% 정도 상승하였다. 파키스탄 정부는 식품가격의 상승이 2008년 2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총선거의 쟁점인 동시에 향후 가격변동에 대응 가능한 재고 확보의 목적으로 2007년 9월, 밀과 소맥분에 35%의 수출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국 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35%의 수출세가 부과되어도 수출량에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는 아니며, 주요 수출국인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수출량은 예년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 USDA에 의하면, ‘국가무역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한 밀 수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8) 아르헨티나: 옥수수 등의 수출세를 인상

2007년 11월 7일 페이라노 경제장관은 곡물수출세 인상을 발표하였다. 수출세는 2002년 1월에 통화 인하를 실시했을 때 대폭적인 세수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농축산물에 도입하고 있었다. 이번 수출세 인상은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품가격의 안정이 정부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자 새로운 인플레이 억제책의 일환으

로 도입되었다. 대두는 현행 27.5%에서 35%로, 밀은 20%에서 28%로, 옥수수는 20%에서 25%로 인상하여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지되었던 대두와 밀의 수출등록은 2007년 11월 13일에 재개된다. 단, 수출 등록이 정지되기 이전에는 1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수출에 대해서도 등록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두는 150일 이내, 밀은 90일 이내의 수출 밖에 등록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수출세 인상의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수출 확대를 노리는 농업단체는 수출세 인상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이 수출세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국 생산의 안정화 등

1) 러시아: 식품 소매가격은 동결, 개입재고는 매도

러시아 정부는 선거용이기도 하지만, 2008년 1월말까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품 소매가격 인상을 동결하고, 밀을 주체가 보유하는 개입재고(150만 톤 정도)들을 매도하고 있다. 매도 상대방 즉 매도대상은 정부계 제분공장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2007년 10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3만 9천 톤(3급 밀 23만 8천 톤, 4급 밀 1천 톤)을 매도하였다. 한편, 소비자는 소매가격 동결 해제 후에 다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식품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 10월 계획에서 식량공급체제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 수출을 포함한 식품 전반을 관리하는 국영기업 설립을 분명히 하였다.

2) 인도: 밀 생산 확대를 위해 최저 생산자가격 인상

인도 정부는 밀 작부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8/09년도(4월부터 다음 해 3월) 밀 최저 생산자가격을 1톤당 218달러에서 17.4% 인상하여 256달러로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3) 파키스탄: 밀 수입에 보조금 지급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공급을 강화하여 식품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밀과 소맥분에 3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7년 9월 15일부터 100만 톤의 밀을 수입함과 동시에 수입하는 밀에는 상승하고 있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약 1억 9,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4) 이집트: 빵류에 전년도보다 50% 증가된 보조금을 거출

이집트의 1인당 소맥분 소비량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량이며, 밀 가격 상승으로 빵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정세가 불안정하게 될 요인이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집트 정부는 2007년 9월 제빵업자에게 전년도보다 약 50% 증가한 24만 7천 달러의 보조금을 거출하고 있다.

수입규제의 완화 등

1) EU-27 개국: 일시적으로 곡물 수입관세를 무관세로

유럽위원회는 2007년 11월 26일 세계 및 EU의 어려운 곡물 수급 및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연맥을 제외한 모든 곡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무관세화하는 제안을 실시했다. 그러나 농상이사회는 2007년 12월 20일 곡물 판매연도가 끝나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라이맥, 메밀곡수, 키비를 제외한 모든 곡물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무관세(적용은 2008년 1월 11일부터)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서 2008년 6월말 전에도 다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고 한다.

2) 인도: 민간 수입분 밀 관세를 철폐

인도 정부는 2007년 10월 8일 국가 무역기업이 아닌 민간에 의한 밀 수입은 당분간 무기한으로 허가한다고 고시(2007년 10월 8일자 상무성 고시 제 35호)하였다. 아울러 이 경우 수입 관세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무관세를 적용(2007년 3월 30일부 재무성 고시 제 52호)하고 있었지만, 이후에 대해서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관세화 하기로 고시(2007년 12월 31일자 상무성 고시 제 123호)하였다.

3) 대만: 밀 수입 관세를 50% 인하

대만 정부는 밀과 소맥분의 가격안정을 위해 밀은 6.5%의 수입관세를 3.25%로, 소맥분은 17.5%의 수입관세를 8.75%로 각각 인하하였다. 옥수수, 수수, 보리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4) 방글라데시: 일시적으로 밀 수입 관세를 무관세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7년 3월 민간 베이스에 의한 밀수입을 촉진하여 국내 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밀에 부과하고 있는 5%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무관세화 하였다.

5) 모로코: 밀 수입 관세를 인하

모로코 정부는 2007년 6월 29일 보리,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빵류의 소매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밀에 부과하고 있는 수입 관세(평균 실행세율)를 과거 최저 수준인 16.61%보다도 낮은 15.39%로 인하하였다. 또한 듀럼소맥은 75%에서 55%로 개정하였다. 다만 미국, EU로부터 수입하는 밀의 관세율은 9.94%가 적용되고 있다. 2007년 보리와 옥수수의 수입 관세는 일시적으로 무관세화하였다.

6) 호주: 5년만에 사료 곡물 수입을 허가

호주 연방 정부의 마크고란 농상은 2007년 11월 가뭄에 의해 곡물재고가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여 (2007년 10월말), 긴급조치로 사료 곡물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실시되면 2002/03년도 한발 때에 미국으로부터 4만 8천 톤의 옥수수, 영국으로부터 27만 톤의 밀을 수입한 이래 처음이다. 2006년의 가뭄시에도 호주 연방정부는 곡물 수입신청을 받았지만, 검역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 수입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 있다.

3. 곡물 가격상승의 영향

개발도상국 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

FAO가 2007년 11월에 공표한 「식량수급전망(Food Outlook)」에 의하면, 2007년 세계 식량수입액은 과거 최고이며 전년대비 21.1% 증가한 7,448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곡물가격 상승이나 해상운임 상승 등에 의해 곡물수입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식량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년대비 64.7% 증가한 유제품이나 동 35.4% 증가한 식물유에 의한 영향도 크다.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영향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특히 개발 도상국 등에서 심각하다.

FAO에 의하면 곡물가격 상승으로 개발도상국 등의 2007년 식품수입액은 2000년의 2배 정도로 추정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품공급은 한층 궁핍해져서 수입량과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시란 사무국장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7분의 1인 8억 5천만 명이 기아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도에

세계에서 지원한 식량 약 700만 톤 가운데 반 정도를 차지하는 밀의 가격이 상승하고, 해상 운임도 동반 상승하여 지원활동에 무거운 부담이 되어, 앞으로 동일한 지원 금액 정도가 모금된다면 지원 대상자수를 줄일 수밖에 없으므로, 기아 확대가 염려된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7년 10월에 공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의하면,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식품비의 비율은 미국이 불과 10% 정도인데 비해 저소득 식량부족국(LIFDC) 등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최빈국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표 6 2007년 식량 수입액과 전년대비 증감 비율

단위: 억 달러, %

구 분	세계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발개발도상국 (LDC)		저소득 식량부족국 (LIFDC)	
	2007년	증감(%)	2007년	증감(%)	2007년	증감(%)	2007년	증감(%)	2007년	증감(%)
식량수입액	7,448	21.1	5,120	19.2	2,328	25.5	159	19.3	1072	24.0
곡물	2408	38.1	1472	40.2	936	34.9	72	26.4	383	29.9
식물유	961	35.4	489	36.1	472	34.8	27	36.7	321	40.3
유제품	719	64.7	506	64.8	213	64.6	13	62.5	81	64.8
식육	824	5.9	634	3.9	190	13.3	9	13.0	73	21.7

주: 1)곡물은 밀, 조곡(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라이맥), 쌀의 합계

2)증감은 전년대비 증감비율

자료: FAO(Food Outlook) 2007년 11월

우리나라 생산자 부담 급증

곡물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축산경영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후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를 막대하게 수입하는 순수입국이며, 사료비가 생산비의 40%에서 60%를 차지하는 축산 경영으

로, 곡물가격의 상승에 의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리고 일본처럼 배합 사료가격안정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격상승의 영향을 완충 없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생산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수요처 확대에 의한 곡물가격 상승과 더불어 유가상승, 해상운임 상승 등이 추가되고, 설상가상으로 곡물 수출국들의 내셔널리즘 확산 즉 공급축소에 의해 높은 대로 높은 가격상승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어, 축산 경영은 한층 더 압박을 받고 있다. 가장 영향이 큰 양돈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문헌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海外編)」, 2008년 2월호